총림실사특위, 5대 총림 실태 재점검한다

9월 17일, 제6차 회의서 논의
"총림 제출 자료와 현실 차이 커"
일정 조율해 진행…간사 각진 스님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실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재안 스님, 이하 총림실사특위)가 1년 여 만에 총림 운영 현황을 다시 점검한다. 지난해 5월 진행한 각 총림 실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점들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총림이 선교율을 겸비한 수행도량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총림실사특위는 9월 17일 서울 룸비니빌딩 5층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총림 수행기관 실태조사 재검'을 논의했다.

위원장 재안 스님은 "특위가 각 총림 실사를 다녀온 지 1년 정도가 지난 만큼,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라는 현실 속에서 총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림실사특위 활동은 특정 총림을 해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한 재안 스님은 "특위는 균형과 견제를 통해 총림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림실사특위는 총무원 교육부로부터 △덕숭총림 수덕사 △해인총림 해인사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조계총림 송광사의 임회 구성 및 총림 내 승가대, 대학원의 학인과 교수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총림실사특위 위원 스님들은 각 총림이 교육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실사 결과가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설암 스님은 "실사 현장에서는 총림 구성 요건이 미흡한 경우가 많고 사찰에 상주하는 승가대학과 율원의 학인 스님 수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종단에서 총림의 학인스님 교육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승가대학과 율원이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 제출되는 총림 입학 지원서를 특위 실사 과정에서도 제공해야 보다 투명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혜도 스님도 "제출 자료와 비교해 지난해 실사 결과에서 다른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며 "총림의 운영 실태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출 자료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총림 직제 구성의 미비점도 제기됐다. 성제 스님은 "범어사의 경우 수좌와 유나, 강주 모두 공석이다. 각 총림이 규정에 맞는 직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총림실사특위는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성원 스님의 총무원 문화부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간사직에 각진 스님을 새롭게 선출했다.



조계사, 지역법회 14주년 기념 승보공양법회 '지심귀명례' 봉행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스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공양을 올리는 법석이 마련됐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9월 14일 지역법회 창립 14주년을 기념하는 승보공양법회 '지심귀명례'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주지 담화 스님 등 사중 스님들과 이승현 조계사 신도총회장 등 신도회 임원진, 서울 25개 구 및 근교 도시 총 32개 지역법회 소속 불자 1000여 명이 동참했다.

각 지역법회 임원들은 스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의(依), 식(食), 주(住), 약(藥)의 사사공양(四事供養)을 올렸다. 사진은 이승현 신도총회장이 진우 스님에게 승보공양을 올리는 모습.

김내영 기자

은해사 종회의원 보궐선거 세림·용주 스님 경선

선관위, 자격 '이상 없음'
선지 스님 후보직 사퇴
10월 2일, 보궐선거 실시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가 세림·용주 스님의 경선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후보자 사퇴가 없으면 10월 2일 오후 1시 은해사 육화원에서 당선자가 결정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 이하 선관위)는 9월 18일 서울 룸비니빌딩 5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21차 회의를 열고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제10교구)'에 입후보한 덕사 주지 세림 스님과 거동사 주지 용주 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후보 등록했던 죽림사 주지 선지 스님은 이날 오전 후보직을 사퇴했다.

선관위는 9월 29일 회의에서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세림 스님은 불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9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7년 직지사에서 성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 총무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세림 스님


용주 스님

용주 스님은 혜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7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11년 통도사에서 고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거동사 주지를 맡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선거법 제13조 및 제 16조에 의해 선출되며 승납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에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태성 스님과 간사 현담 스님, 위원 진산·혜민·탄정·혜광·유승 스님이 참석했다.

김내영 기자

'명상인류'를 위한 선명상 안내 가이드

KBS1TV 2부작 다큐 방영
'선명상' 마음 수행법 소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KBS1TV '다큐ON'의 '명상인류'에서 선명상 실천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BS

'명상'이 더 이상 특정 종교에 머물지 않고 전 인류적 흐름이 되고 있고, '선명상'이 그 흐름의 중심에서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9월 13~14일 방영된 KBS1TV '다큐ON'의 '명상인류(책임프로듀서 박상욱)' 2부작은 현대인의 마음 수행법으로 주목받는 선명상의 원리와 깊이, 실천법을 조명했다.

1부 '나는 누구인가'에서는 명상으로 삶을 건강하게 일구고 있는 이들의 인터뷰를 통해 "호모 사피엔스는 곧 명상인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50년간 명상을 해온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라 말하고,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는 "명상은 '나'라는 존재의 키를 다시 잡아주는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22년차 명상 고수 피아니스트 임현정, 종교학자 성해영 교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 이제 막 명상에 입문한 가수 이승기의 인터뷰를 통해 명상의 놀라운 효과를 소개했다.

특히 선명상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에서 언제든 실천할 수 있는, 불교의 참선 전통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마음 치유법임을 알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마음이 괴로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결국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평안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인들은 이제야 서서히 자신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며 "한국 K-선명상이 세계의 정신문명을 주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부 '멈추고, 보고, 사랑하라'에는 광우 스님과 배우 김지호, 방송인 곽정은·김대호가 강원도 정선으로 떠난 '4인4색 명상여행'이 담겼다. 광우 스님은 '멈춤과 비움, 내려놓음'이라는 선명상의 핵심 사상과 실천법을 소개했다. 또한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묵 스님은 참선과 화두의 의미를 설명했다.

'명상인류'는 KBS1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KBS 다큐 라이브'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여수령 기자

조계종연구소, '종책제안서 공모전' 개최

10월 31일까지 이메일 접수

조계종이 종단 미래를 밝힐 중장기 비전이 담긴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조계종연구소(소장 원철 스님)는 9월 17일 "불교와 종단의 미래를 설계하는 토대를 다지고자 '종책제안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아 종책 개발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공모 분야는 △교육·포교·수행·복지 등 전반적으로 불교계와 관련된 '불교종책 분야' △종단이 사회의 각 분야와 함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담은 '불교사회 분야' △종단이 건전한 수익을 창출해 승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는 '종단재정 분야' △그 외 자유로운 제안을 담을 수 있는 '기타 분야'로 나뉜다.

접수는 10월 31일까지 이메일(fourdeva@wehago.com)로만 받는다.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 기준 A4 5장 이상(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으로 작성하면 된다. 1쪽 상단에는 반드시 제목과 성명(또는 법명), 제출 분야, 현재 소속, 휴대폰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다만 이미 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책을 제출하거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 또는 무효처리된다.

수상자는 11월 17일 이후 개별 통보된다. 최우수상 1명에 상금 500만원, 우수상 5명에 각 100만원, 장려상 10명에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당선작의 지적재산권은 조계종에 귀속된다. 02-2011-1940

김내영 기자

2025 제10회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

일시 2025. 9. 27. 토
장소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주최: (재)한마음선원
주관: 한마음과학원

10:00~10:20 개회식 — 사회: 심성학 기술보증기금 본부장

세션 1 — 좌장: 박근영 한마음과학원 회원

10:30~11:30 인공지능 시대의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성: 불교적 관점
발표: 박진영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 미국 / 토론: 청동스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수료

11:45~12:45 白雲和尙語錄에 실린 편지의 분석을 통해 본 白雲和尙(1298-1374)의 생애와 사상
발표: 야닉 브뤼느통 파리 시테 대학교 교수, 프랑스 / 토론: 혜유스님 한마음아카데미, 독일

세션 2 — 좌장: 김종훈 김종훈치과 원장

14:00~15:00 한마음(오직 心)의 힘과 의본론(意本论): 금강경에 대한 비교철학적 해석
발표: 원하이밍 인민대학교 교수, 중국 / 토론: 김재영 산동대학교 치루 연구 레지던시 프로그램 방문학자, 중국

15:00~15:50 오공(五共) 사상을 기반으로 한 심상유도명상 프로그램 체험 연구: 생성형 AI 이미지 활용 중심으로
발표: 김준형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 토론: 이준엽 약산애 한방병원 원장

16:00~16:30 앎의 환상으로부터의 해탈 - 대행선과 족첸의 관점에서
발표: 오영국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 토론: 양영순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선임연구원

16:30~17:00 수행으로서의 축제: 대행선사의 가르침에 입각한 한마음선원의 연등회 준비
발표: 박진영 동국대학교 선학과 박사과정 / 토론: 박소진 신한대학교 교수

17:10~18:00 종합토론 — 좌장: 이화행 동명대학교 교수

18:00~18:20 폐회식

YouTube 한마음선원 공식채널 생중계

자료집 다운로드: 자료집은 한마음과학원 사이트 (https://hansi.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